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죽은행 226-0180

光州日報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광주 23/29℃ 목포 23/27℃ 여수 23/26℃

단기 4342년 (음력 5월 25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kwangju.co.kr 제18421호 1판 2009년 7월 17일 금요일

# '폐렴 입원' DJ 한때 위중

## 인공호흡기 부착…세브란스병원 "위급 상황 넘겨"

폐렴으로 치료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병세가 한때 나빠져 인공호흡기를 부착했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는 아니라고 세브란스병원이 16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세브란스 병원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밤과 16일 새벽, 호흡이 가빠지고 산소포화도가 86% 수준까지 떨어져 의료진이 16일 오전 3시께 인공호흡기를 부착했다.

하지만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이후 김 전 대통령의 산소포화도는 정상치인 90%대를 회복하고 맥박과 호흡, 체온 등 다른 건강 수치도 큰 변동 없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소포화도는 숨을 쉬는 데 필요한 몸 안의 산소량을 뜻하는 것으로 정상치가 95% 이상이며 90% 이하로 내려가면 저산소증으로 호흡이 곤란해져 위급한 상태가 될 수 있다.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김 전 대통령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안정제를 이용해 안정을 취하고 있다"며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상태가 좋아지고 폐렴 증세가 나아지면 호흡기를 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이어 "당장 (앞으로의 상태를) 예측하기는 어렵고 치료를 해보고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통령이 고령인 데다 심신이 허약한 상태에서 '폐렴'이 급속도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건강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김 전 대통령의 건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 정국에 커다란 파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된 것은 고령인 점도 있지만 햇볕정책 등 국민의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부정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등으로 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데 기인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

**"광주천 넘칠라"** 광주천이 범람 직전에 이르렀다. 이틀에 걸쳐 광주에 내린 202㎜의 장맛비로 16일에는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 인근 다리까지 물이 차올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7일 광주·전남에는 5~40㎜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나로호 발사 8월초로 연기될 듯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Ⅰ)의 발사 날짜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나로호 발사체 1단 시험을 담당하는 러시아 측이 서한을 보내 1단 연소시험일정이 기술적인 문제로 연기돼 오는 27일 이후에 가능하다는 내용의 서한이 발송됐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러시아 흐루니체프사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보낸 서한은 시험 종료 후 새로운 발사일정에 대해 즉시 재협의하자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30일을 목표로 했던 나로호 발사 일정은 8월 초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교과부는 17일 관계기관별 회의를 통해 일정을 최종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나로호는 지난해 8월 중국 쓰촨성 지진 등으로 일부 부품도입이 늦어져 지연됐으며, 올 초 발사대시스템 성능시험 항목이 늘어나면서 발사가 늦어지는 등 수차례 연장된 바 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 나로호 뷰포인트 16곳 선정

전남도가 오는 8월초로 예정된 '나로호(KSLV-Ⅰ)' 발사 장면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명당자리 16곳을 선정하고 '카운트다운 쇼'를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는 등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발사장면을 보려 몰려들 관광객 맞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16일 '신비한 우주체험 남도여행'이라는 홍보 리플릿 1만 부를 제작, 수도권의 관광안내센터와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여수·순천·고흥·보성 등지의 관광안내센터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리플렛에는 나로호 발사장면을 볼 수 있는 명당자리(View point) 16곳이 위성사진과 함께 소개돼 있으며, 우주발사와 관련해 인근 지역에서 추진되는 '신나는 우주발사 축제'를 비롯한 하늘과 우주를 향한 남도 여름휴가 코스, 추천음식, 숙박지 등을 자세히 수록돼있다.

■나로호 발사 뷰포인트 16곳

리플렛에 게재된 명당자리는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 봉남 등대 부근을 비롯해 포두면 마복산, 영남면 남열리 해돋이 해변·발사전망대, 영남면 우천리 용암마을 용바위, 영남면 남열리 해안도로, 점암면 팔영산 등 7곳과 여수시 남면과 화양·화정면 등 9곳 등 총 16곳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복구할 새도 없이 또 '물폭탄'

## 유실·침수 피해 속출…4명 사망·실종
## 영산강·섬진강·광주천 범람 위기 긴장

폭우를 동반한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16일 광주·전남지역에 최고 297㎜의 '물 폭탄'이 또다시 쏟아지면서 인명피해와 주택·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속출했다. 〈관련기사 2·6면〉

이번 폭우로 영산강과 섬진강, 광주천 등 광주·전남지역 일부 하천이 한때 범람위기를 맞아 홍수경보가 발령되면서 일부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으며, 광양시와 나주시 등 전남 4개 시·군 9개소의 도로 교통이 통제됐다.

1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광양에 최고 294.3㎜의 비가 내렸으며, ▲나주 285.8㎜ ▲보성 237.8㎜ ▲강진 229.5㎜ ▲영암 217.7㎜ 등 전남지역에 평균 182.3㎜의 집중폭우가 쏟아졌다. 광주에서는 145.5㎜의 비가 내렸다.

이 비로 전남지역에서는 1명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으며,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으로 총 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특히 너릿재터널 부근 광주에서 화순 방향 도로가 가로 3.5m, 세로 5m, 깊이 1m가량 함몰돼 광주시가 응급복구 작업을 벌였다. 이날 함몰된 도로는 지난 7일과 12일에도 함몰됐던 곳으로 지난 12일에는 운행 중이던 차량 2대가 파손돼 땜질식 복구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명 사망, 3명 실종**=이날 오전 9시30분께 광양시 진월면 모 철판가공공장에서 강모(42)씨가 전날부터 내린 비로 공장 안에 찬 물을 빼기 위해 양수기 전원을 켜려다 감전돼 숨졌다.

또 오전 11시17분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답동마을 앞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황모(33)씨가 흙에 파묻혀 실종됐으며, 오전 8시10분 구례군 광의면에서 김모(73)씨가 논에서 배수작업을 하던 중 실종됐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엔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과 장성 동화면 경계 황룡강 지류에서 초등학생 A(9)양이 자전거를 타다가 물에 빠져 실종됐다.

**◇곳곳 침수, 유실**=광양시 다압면 등 5개 지구 농경지 730ha가 물에 잠기는 등 전남에서는 농경지 1천720ha와 염전 131ha가 침수됐으며, 광양과 무안 등에서 주택 36동이 물에 잠겨 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한, 이날 오전 10시께 화순군 한천면 오음리 지방도 822호선 경사면 붕괴로 2시간 가량이 도로 통행이 중단되는 등 도로 2곳이 유실피해를 입었다. 이밖에 순천시 낙안면 금산마을 소하천 제방 300m가 유실되는 등 화순군 9개 하천을 비롯한 18개 하천 제방이 유실됐다.

또, 지난 7일 200~300mm의 '물폭탄'이 쏟아졌던 나주와 신안, 목포 등에서는 복구할 틈도 없이 또다시 집중호우가 내리는 바람에 피해가 커지고 있다.

**◇하천 범람 위기**=이날 오전 10시 16분께 나주시 남평읍 지석천 수위가 홍수경보 수위인 4.5m에 가까워지자 홍수경보가 발령됐으며, 일부에서는 하천이 범람해 10세대 25명이 능주면 사무소로 대피했다. 섬진강 구례지점 역시 오전 10시40분께 수위가 5.52m를 넘겨 홍수주의보가 내려졌고, 섬진강 송정지점도 역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 /최권일기자 cki@

신양파크호텔
여름 웨딩 패키지
뷔페/양식 27,000원 부터
(세금포함)
예약실 062-228-4711~2
대표전화 062-228-4000